홈페이지QR

CJ CHEILJEDANG FEED

농축환경신문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제1262호(주간) www.nonguptimes.com 전화 (02) 582-4016 이메일 press@nonguptimes.com

최대성장을 통한 출하일령 단축 농협사료 G맥스

2 농식품부·농정원,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 3 농진원, 농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 | 4 경농, 2027년 Kick-Off 대회, 새해 도약 결의 | 9 북부지방산림청, 양평권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논의

K-푸드+ 수출 122억 9000만 달러 돌파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을 배경으로 라면, 김치, 포도 등 주요 K-푸드 수출 품목과 해외 물류 이미지를 합성한 모습. (AI 합성 이미지)

10월 누적 수출 118억 8000만 달러… 전년 비 4.9% 증가
라면 15억 9000만 달러·포도 신선농산물 첫 1억 달러 달성

한국 농식품과 농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이어 포도가 신선농산물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하고, 비료·동물용의약품·스마트팜 등 농산업 분야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 말 기준 K-푸드+ 누적 수출액이 118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잠정 수출액은 122억 9000만 달러로 12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역대 최단 기간인 262일 만에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K-푸드+는 신선·가공 농식품과 농기계, 비료,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 분야를 포함한 수출 실적이다.

10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90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4% 증가했다. 가공식품은 78억 달러로 5.9%, 신선농산물은 12억 7000만 달러로 2.7% 각각 늘었다. 권역별 수출 증가율은 중남미 29.4%, 유럽(EU·영국) 24.2%, 중동(GCC) 20.6%, 북미 11.7%, 중화권 7.0%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신흥시장에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2024년 중국을 제치고 최대 K-푸드 수출시장으로 올라선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미국 수출액은 16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주요 품목은 라면 2억 7650만 달러, 과자 2억 4950만 달러, 쌀가공식품 1억 4160만 달러 등이다. 특히 포도 수출은 177.3% 증가하며 현지 주류 유통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성과를 보였다.

중국 수출액은 14억 1000만 달러로 7.0%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 라면의 최대 수출국으로, 라면 수출액이 전년보다 23.9% 늘어난 3억 95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시장에서는 폴란드 109.9%, 스페인 33.4%, 독일 3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이 45.4%, 닭고기 수출이 555.7% 증가했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와 브라질 수출이 각각 93.0%, 43.8% 늘었으며, 중동은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우회 경로 확보 등으로 20.6% 성장했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K-푸드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라면 수출액은 15억 851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6.3% 증가했다. 지난 7월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자류는 6억 7710만 달러로 7.7%, 소스류는 3억 6190만 달러로 5.8%, 쌀가공식품은 2억 4990만 달러로 8.9% 각각 증가했다. 신선농산물에서는 포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포도는 지난 10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인 8574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11월에는 신선농산물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대만은 전년보다 114.4%, 미국은 177.3% 증가했다. 미국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망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시장 기반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포도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개방 피해 우려 품목에서 수출 성장 품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치 수출액은 1억 40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딸기는 6110만 달러로 15.3% 늘었다. 돼지고기 수출도 4130만 달러로 15.3% 증가했으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싱가포르 수출은 310.8% 급증했다.

농산업 분야 수출액은 28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비료와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이 수출 증가를 이끈 반면 농기계와 농약, 종자는 소폭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신흥시장 개척, 검역 협상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과 농산업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어촌공사, AI·드론 활용 안전관리 강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포럼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기후변화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증평에서 지방정부와 학계,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진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첫날에는 기후안전도 도입과 위성 간섭합성개구레이더(InSAR) 활용, 3차원(3D) 매핑 기반 시설물 상태평가, AI를 활용한 보수·보강 시점 예측 등 주요 기술이 소개됐다.

유승환 전남대학교 교수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해 시설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후안전도' 도입을 제안했다. 시설별 위험 수준을 등급화해 점검과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애띠 인스페이스 소장은 위성 레이더 영상을 통해 지반 침하와 미세한 지표 변화를 분석하고, 현장 점검이 시급한 저수지를 선별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최홍석 국토안전관리원 부장은 드론과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시설물의 3차원 정보를 구축하고 AI로 균열 등 손상 부위를 탐지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고소 작업이나 수상 점검의 위험을 줄이고 시설물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정밀안전진단 자료 5330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사는 기존 진단자료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정형화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손상 유형 등을 분석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점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기술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업무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강밀' 유전체 해독 성공…우리 밀 디지털육종 본격화

밀 자원 614점·8년간 조사자료 활용…출수기 예측 정확도 확보

농촌진흥청이 국내 대표 밀 품종인 '금강밀'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밀의 이삭이 나오는 시기인 '출수기'를 평균 하루 오차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외국 품종에 의존해 온 밀 유전체 분석체계에서 벗어나 국산 밀을 기준으로 한 표준유전체를 확보하고, 이를 실제 품종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로 벼·밀 이모작에 적합한 조숙 밀 품종 개발과 육종 과정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2027년 디지털육종 플랫폼을 공개하고, 국내 밀 품종 개발과 민간 육종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주요 곡물이지만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벼·밀 이모작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 확대와 재배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옥현충 농업생명자원부장이 농업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우리 밀 유전체 해독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조사·선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전정보로 출수기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우선 밀 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인 표준유전체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최신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적용해 국내 대표 밀 품종인 금강밀의 유전체를 염색체 수준에서 해독하고, 고품질 표준 유전체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 밀 품종을 기준으로 유전적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주요 형질과 관련된 유전변이를 탐색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

금강밀 표준유전체 해독 연구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Data에 'Chromosome-level genome assembly of the Korean wheat cultivar Keumkang'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 10월 게재 승인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국내 밀 유전체 분석의 독자적인 기준을 확보하고, 이를 출수기 예측과 품종 선발 기술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예측모델의 현장 적용성과 정확도를 검증하고 조숙성뿐 아니라 수량성, 병해 저항성, 가공 품질 등을 갖춘 신품종 개발로 이어지는지가 우리 밀 디지털육종 기술의 실용화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